

새만금 예산 68% 복원

총 4528억원 확보, 각 부처 요구 예산안보다 부족... '절반의 성공' 도의회 "예산 회복 위한 행동 끝나지 않아" 더 많은 확보 노력 다짐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대거 삭감돼 전북도의 반발을 불러온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일부가 여야의 합의 끝에 복원됐으나, 여전히 각 부처 요구 예산안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번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 SOC 예산은 3,049억원이 복원돼 총 4,52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 6,626억에 비해 68% 수준이다.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으로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정부안에는 5,147억원(79%)이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었다.

이번에 복원된 새만금 SOC 사업별로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261억원이 증액돼 총 327억원이 배정됐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133억원이 증액돼 총 1,467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116억을 추가확보해 127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에 1,190억원이 증액돼

총 1,628억원,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에 100억원을 추가확보해 총 165억원,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사업에 30억원이 추가돼 총 4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단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던 핵심 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에는 187억원이 신규로 추가 배정됐다. 새만금지구 내부개발사업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 새만금 입입철도 예산 등은 추가 증액 없이 삭감된 금액으로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과 함께 전북도가 정부의 예산삭감에 거세게 저항했지만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삭감된 금액을 상당 수 살리지 못해서다.

이에,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국회에서의 내년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이 68% 수준으로 확정된 것을 두고 "국회의원 증액 때 총 327억원이 배정됐다"

도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종 확보된 새만금 예산은 우리가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그동안 전북도민과 출렁인 등 전북인들이 느꼈

던 소외감과 좌절감, 그리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염원하는 국민의 상처에 비하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우리의 행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중앙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당초 부처예산안 복원은 물론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며 "애환의 눈물로 가득한 새만금이 아닌, 희망가가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전심전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의회는 "그동안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깎바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알리고 원상회복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곡기를 끊는 단식과 눈물의 사발식, 물집이 터지고 붉은 피로 범벅이 된 발바닥의 고통을 참아내며 국회까지 총 280km를 달리는 등 전북도민들의 역할한 의침은 전북인을 하나로 모으는 커다란 울림이 됐다"면서 응원해 주신 전북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21일 노인복지시설인 '신성양로원'을 찾아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직접 확인하며, 입소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사회적 약자, 건강한 겨울 보내도록 돌볼 것”

김관영 도지사, 한파 취약 노인복지시설 방문 직접 점검

김관영 도지사는 21일 노인복지시설인 '신성양로원'을 찾아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직접 확인하며, 입소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겨울철 난방비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

담을 덜어주고 두텁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자체적으로 난방비를 지원 중이다"며 "시설에서도 사전에 꼼꼼한 시설 점검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강력한 한파 발생이 예상되는 올겨울 사회적 약자가 안

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양로시설 6개소에 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로시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2024년부터 도내 양로시설에 냉난방비를 포함한 운영비 8.8%를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지방의원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박용근·이명연 도의원, 좋은 조례 '최우수상'

전북도의회는 박용근(장수)·이명연(전주10)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15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 지난 7일까지 심사를 거쳐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시상식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됐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좋은 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적 적합성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박용근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와 이명연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박용근 도의원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이명연 도의원 '전북도 대지 조정 관리 조례'



발의한 '전라북도 대지의 조정 관리에 관한 조례'를 좋은 조례로 선정했다.

박용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는 도내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취득비용 및 교육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함께 성장해 이웃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외,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대지의 조정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심 속 조경면적 확보라는 건축법 취지와 달리 건축허가용으로 조성했다가 방치, 훼손되고 있어 2년마다 대지의 조정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주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해 도심 속 조경면적 확보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박용근 의원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격증 취득 교육 및 취업 지원을 넘어 사회공헌 활동의 의원을 확장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련 예산과 공간 마련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명연 의원은 "매니페스토는 도민과의 약속, 올바른 정치의 척도라는 마음으로 임해왔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한경봉 군산시의원, 기초의원 좋은 조례 '최우수'

시의회 인사청문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공개 조례 등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더불어민주, 나은1·2동, 사천)이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부문과 좋은 조례 부문으로 나누어 매해 수상하고 있다.

특히, '좋은 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한경봉 의원은 제9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제4~7대 군산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다산의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의 미래산업을



견인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자유발전,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대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한경봉 의원은 좋은조례 분야 공모에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와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검증 절차를 철저히 했고,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후보자에 대해 엄밀한 잣대를 들 수 있게 기반을 마련했으며,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안'은 전국 최초로 공개범위를 5급 이상으로 명문화해 군산시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기준을 확고히 다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경봉 의원은 "매니페스토는 시민과의 약속이자 올바른 정치의 척도라는 마음으로 임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고 관련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본 상은 시민단체 중심의 매니페스토 운동을 기반으로 한 (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의 정책 발의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권위 있는 시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군산=김판관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